



교섭속보

13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욱

산별총파업 7-1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코로나19의 진정한 영웅인 직원을 최고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하라!

2019년 말,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빠뜨린 최악의 바이러스 '코로나19' 대한민국도 피해가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강력한 방역 지침을 통해 코로나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의료원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병원사업장으로써의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제진료소 및 코로나19병동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K-방역의 위용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런 K-방역의 뒤에는 직원들의 영혼까지 불태운 희생과 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엄청난 노동강도에 허덕이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더 채찍질하고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 2020년 1조 3천 억 원이라는 최대의 의료수익을 기록하며 병원의 규모는 거대해졌으나 열악한 교대근무 제도로 인해 간호사들의 출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명퇴 사직자리를 채워주지 않아 남은 직원들이 2배 3배의 업무를 감내 하고, 2년마다 바뀌는 비정규직 비율은 이제 20%를 훌쩍 넘겼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불성실 교섭으로 직원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사측 대표위원인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본교섭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자, 직원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자."고 말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원이 병원 발전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8,500 직원들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대의료원의 가치는 장담할 수 없다. 말 뿐인 공약으로 직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희생과 배려라는 미명하에 참을 수 밖에 없었던 열악한 노동현실을 깨부수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9월 산별총파업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포기자! 투쟁 승리 파업전야제!

시간 및 장소 : 오후 6시 병원 로비

전 조합원 조출 선전전 3일차

총 3일간의 조합원 조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3일간 약 250여 명의 조합원이 투쟁 승리를 외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전 조합원 모두가 로비에서 투쟁 승리를 외치는 날입니다! 6시에 만나요!

